

한국어

2023년 교재 가이드



반값교재 양심교재 판매

정가의 절반입니다. 내용은 책과 똑같습니다. 표지 대신 투명 비닐 커버고 DIY 스프링 제본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스프링을 끼웁니다. **킴복스 교재 공동구매 전용몰(<http://commbooks.cafe24.com>)**에서만 판매합니다.



강의를 풍부하게 만드는 강의용 **PPT** 무료 제공

교재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강의자에게 제일 먼저 제공합니다.

PPT 목록 확인 **PPT 신청**



검토 교재 신청

한 과목당 한 권의 검토 교재를 증정합니다.

검토 교재 신청하기

<http://commbooks.com/굿클래스> 에서

위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세요.

문의 **02-3700-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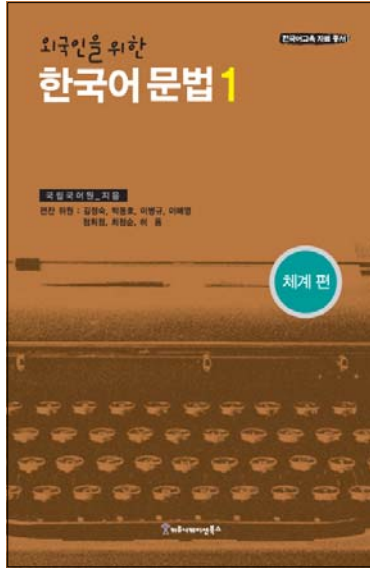
text@commbooks.com

차례

베스트 교재 05

이해총서 교재 20

베스트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 편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 최초의 한국어 표준 문법 사전을 발행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각종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정리한 책이다.

국립국어원, 신국판, 570쪽, 35,000원, 2005-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 편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 최초의 한국어 표준 문법 사전을 발행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각종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정리한 책이다. 주표제어 900개, 가표제어 500개의 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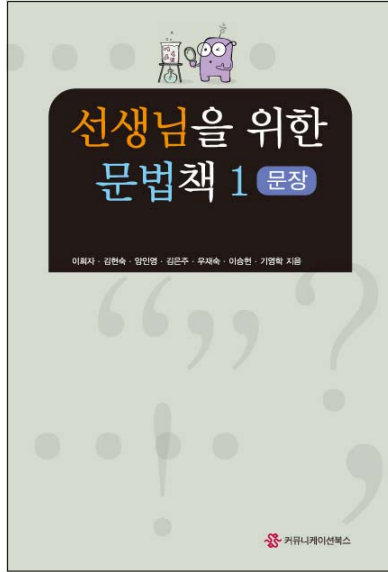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신국판, 906쪽, 45,000원, 2005-11



내겐 너무 매운 한국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문화를 통해 ‘생활한국어’를 체득하게 된다. 특히 문형 위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 초급부터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매 꼭지마다 들어 있는 일본인 저자 토모미씨의 에피소드와 상황에 맞는 만화 일러스트는 내용에 감칠맛을 더한다.

조영미·사사키 토모미, 신국판 변형, 194쪽, 16,000원, 2006-04



선생님을 위한 문법책 1: 문장 편

‘문장론’을 문장의 성분과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속하는 세부 주제로 12개의 장을 나누어 그 각각에 10여 개의 질문을 선정하여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매 장마다 연습 문제를 넣어 학습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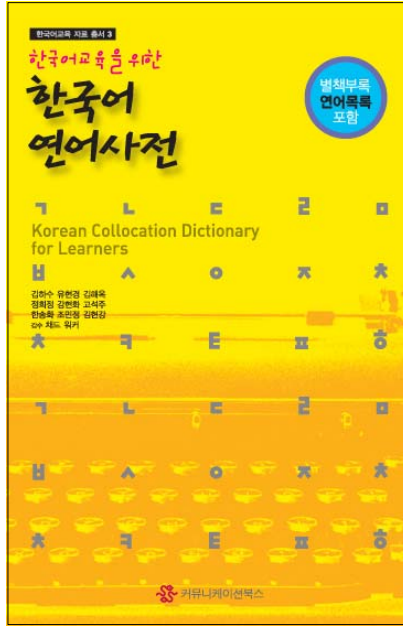
이희자·김현숙·양인영·김은주·우재숙·이승현·기영학, 신국판, 304쪽, 13,000원, 2007-02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문학 교육론 반값

한국어교육에 한국 문화와 문학을 활용하는 이유는? 통합적, 심층적 교육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는 어휘와 문법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활용하는 텍스트는? 시와 소설, 대중가요, 뮤지컬, 드라마, 문화 유산 등 다양한 문화·문학 콘텐츠다. 구체적 방안은? 부록에서 수업계획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필요와 효율을 고려해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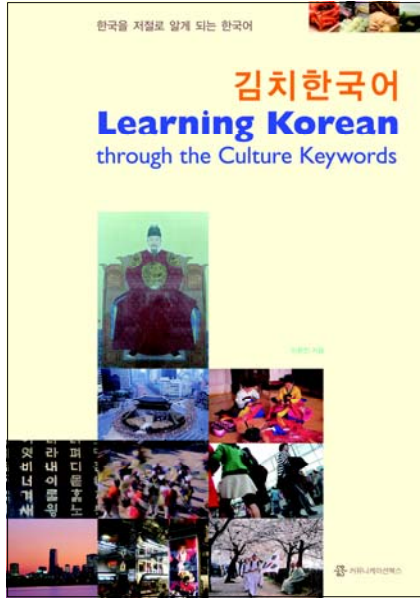
신주철, 신국판, 326쪽, 25,000원, 2013-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

국내에서 최초 출간하는 한국어 연어 사전이다. 한국어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코퍼스에 나타난 어휘의 선후행 언어 관계와 의미 관계를 세밀히 보여줌으로써 어휘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품사 분류나 언어 단위 등 언어학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문장 안에서 단어의 기능과 활용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기술했다. 중급이상의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교육 교재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김하수·유현경·김해옥·정희정·강현화·고석주·한송화·조민정·김현강, 채드 워커 감수, 사륙판, 1,405쪽, 38,000원, 2007-09



김치한국어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읽기 교재.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미지로 자주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김치, 불고기, 삼계탕, 아리랑, 서울, 제주도, 떡, 온돌, 한복, 한글, 이죽마 등 15개의 주제를 골랐다.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도록 단어 확인과 문제풀이까지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윤진, 국배판, 220쪽, 20,000원, 2006-07



고급 한국어 학습 사전

케이비에스 <우리말 겨루기> 예심장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예심 합격자의 1/4 이상이 똑같은 책을 들고 있다. 2013년, 퀴즈 준비자들은 이 책의 출간을 학수고대했다. 그들이 훑어야 할 자료의 양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준 이 책이 절찬리에 판매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마침내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초판 출간 2년 만에 최단기간으로 증보 편간한 유일한 국어사전이다. 2013년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마지막 종이 국어사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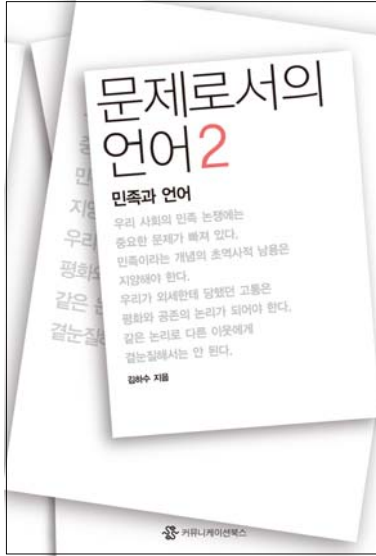
최종희, 신국판, 1548쪽, 68,000원, 2015-11-01



문제로서의 언어 1- 사회와 언어

사회언어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문제와 얼마나 씨름하며 고뇌하느냐에 따라 그 질과 양이 결정된다. 이 책은 형식과 문법 중심의 언어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 언어 사회에 대한 다양한 쟁점은 사회언어학의 문제 제기이자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다. 1권 '사회와 언어'에서는 사회와 언어의 상관관계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논란이 많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등에 대해서도 사회언어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하며, 인터넷으로 인한 우리말의 변화, 국어 순화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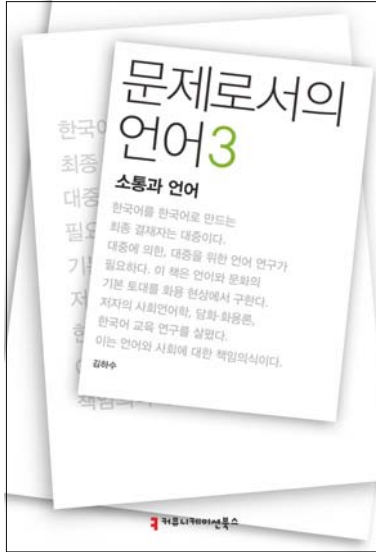
김하수, 신국판, 257쪽, 19,000원, 2008-07



문제로서의 언어 2- 민족과 언어

우리 사회의 민족 논쟁에는 정작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의 초역사적 남용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외세한테 당했던 고통은 평화와 공존의 논리가 되어야 한다. 같은 논리로 다른 이웃에게 결눈질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한글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한편 남북한 언어 문제와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해 사회언어학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2권 '민족과 언어'에서는 외솔 최현배 선생의 행적을 중심으로 역사 속의 국어학을 돌아보며 한글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남북한 언어 문제와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해 사회언어학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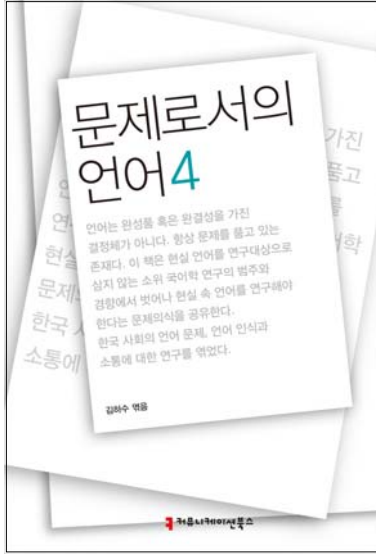
김하수, 신국판, 240쪽, 19,000원, 2008-07



문제로서의 언어 3- 소통과 언어

한국어를 한국어로 만드는 최종 결재자는 대중이다.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언어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은 언어와 문화의 기본 토대를 화용 현상에서 구한다. 저자의 사회언어학, 담화· 화용론, 한국어 교육 연구를 살폈다. 이는 언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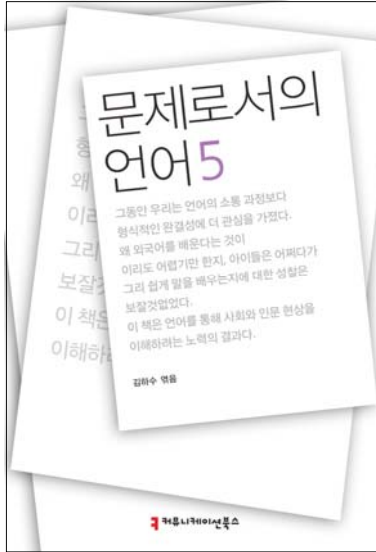
김하수, 신국판, 294쪽, 21,000원, 2014-07



문제로서의 언어 4

언어는 완성품 혹은 완결성을 가진 결정체가 아니다. 항상 문제를 품고 있는 존재다. 이 책은 현실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는 소위 국어학 연구의 범주와 경향에서 벗어나 현실 속 언어를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한국 사회의 언어 문제, 언어 인식과 소통에 대한 연구를 엮었다.

김하수, 신국판, 534쪽, 32,000원, 2014-08



문제로서의 언어 5

그동안 우리는 언어의 소통 과정보다 형식적인 완결성에 관심을 더 가졌다. 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리도 어렵기만 한지, 아이들은 어찌다가 그리 쉽게 말을 배우는지에 대한 성찰은 보잘것없었다. 이 책은 언어를 통해 사회와 인문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김하수, 신국판, 504쪽, 31,000원, 2014-08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화어문학의 목표는 뭔가? 기존 어문학을 문화론의 관점에서 계승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왜 문화론을 취하나? 언어와 문학을 실제 언중의 삶과 결부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다. 혁신의 방향은? 텍스트 중심 연구에서 행위 중심 연구로, 이론 중심 연구에서 생활 중심 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문화어문학의 이론과 방법을 모색한다.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백두현·정우락·김하수·천정환·김용규·배준영·김기현·김덕호·남길임·이종목·이상원·김재석·와 다 토모미, 신국판, 428쪽, 28,000원, 2015-08

이해총서 교재

이해총서 교재는
강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10가지로 콤팩트하게 정리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저널리즘의
개념, 이론, 역사를 망라합니다.
주교재, 부교재, 읽기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해
강의를 알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로마자표기는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중요하다. 인명, 지명, 관직명, 출판명, 고유명사들은 민족문화의 핵심 요소이나 번역으로는 의미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자라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전 세계에서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자를 이용하여 국어를 표기하는 규범을 만들었다. 이 책은 로마자 정의와 로마자표기의 목적, 국어 로마자표기의 변천과 내용, 인명과 도로명, 지명 표기의 현실을 다룬 뒤, 로마자표기와 번역의 관계, 남북한의 로마자표기 통일에 대해 논의한다. 또 로마자표기법이 중요한 어문규범으로 인식, 활용되기를 바라는 제언을 담았다.

정경일, 사육관, 116쪽, 9800원, 2015-05



문자의 발달

고대 문자의 기능은 오늘날과는 달랐다. 이집트문자는 지배자들이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역할에 주로 쓰였다. 왕의 무덤 안에는 죽은 이를 저 세상으로 편안히 인도하는 내용이 쓰여 있다. 메소포타미아문자는 증빙 자료와 공문서에 많이 쓰였다. 인더스 유역 문자는 밀봉하고 찍는 소인 기능을 하는 상형 문자가 많았다. 모두 요즘처럼 개인 간 일상적 소통이 아니었다. 한자도 초기의 갑골문자는 신과 소통하는 수단이었다. 주 왕조에 이르러 청동 그릇에 새겨진 금문(金文)으로 발전해, 가문이나 물품 획득 내력 등을 써 놓았다. 이러한 형태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볼 수 있다. 술잔에 “내 주인은 아무개다”라고 자기 이름을 적거나 새겨 넣기도 했다.

김하수, 사륙판, 180쪽, 9800원, 2015-11



방언, 이 땅의 모든말

방언 혹은 사투리의 존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개념이나 실체를 명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비표준어나 시골말이라는 인식만 있을 때대로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방언은 잘못 활용, 부속화됨이 아니라 오히려 위급해져 왔다. 한국어라고 간주되는 모든 방언은 방언이며 모든 한국어 화자는 곧 방언 화자이다. 그리고 그 방언들을 모두 합쳐야 그것이 곧 온전한 한국어가 된다. 한국어에는 어떤 방언이 있는가, 각각의 방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더 잘 알고 쓰는 길이기도 하다. 이 땅의 모든 말이 곧 방언임을 아는 순간 우리말에 대한 애정은 더 커질 것이다.

한성우, 사륙판, 130쪽, 9800원, 2015-11



사전과 정보란 무엇인가

세상에 사전은 많지만 사전에 대한 책은 많지 않다.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는가? 사전을 펼치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디지털 인문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전은 어떤 텍스트로 다가오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따라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담은, 내게 꼭 맞는 정보를 담은 사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준 컴퓨터와 말뭉치, 말뭉치언어학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안의정, 사륙판, 116쪽, 9800원, 2015-11



언어와 권력

언어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인류는 채집과 사냥의 시대를 거쳐 농경사회가 시작된다. 이로 인해 사유재산이 생기고 계급 분화는 촉진되었다. 문자의 탄생은 생산관리, 조직의 운영을 촉진하고 학문을 탄생시켰다.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근대까지 문자를 통한 소통은 제한된 권력의 전유물이었다. 근대 이후 문자를 익힌 시민 대중은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디지털 사회의 도래는 아날로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허물었다. 한편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의 확대로 권력의 집중과 소외는 가속화했다. 이 과정에서 영어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 이 책은 언어와 권력, 그리고 권리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만들었다.

송영빈, 사륙판, 132쪽, 9800원, 2015-11



한국의 문자들

만일 우리 문자의 역사를 훈민정음과 한글로만 한정하고 한자를 배제한다면 그 이전의 문자기록을 우리의 문화 역사에서 지우거나 주변화하게 된다. 훈민정음이라는 불세출의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한자 사용의 역사가 어찌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문자 사용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기리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재인식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문자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해 온 한자를 들여다보고, 훈민정음 이후의 우리 문자 사용의 변화를 고찰한다.

김하수·이전경, 사륙판, 178쪽, 9800원, 2015-05



현대 속담

현대 속담은 ‘옛말 그른 것 없다’는 말에 도전하여 현대의 가치관에 맞게 생성되고 사용된다. 이 책은 현대 속담의 기능, 생성, 종류, 어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 새로운 문화로서 현대 속담의 언어 놀이와 대중이 소통의 형식으로 속담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현대 속담의 새로운 표현과 변화된 대중의 의식으로 자본주의 시대적 교훈과 도덕성을 분석했다. 현대 속담은 물질주의 문명의 발달과 정신문화의 지체 현상에 대해 갈등하고 수용하며 조화를 찾아가는 대중의 의식을 패러디하거나 새롭게 표현한다. 현대 속담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에서 대중이 의식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곽은희, 사륙판, 116쪽, 9800원, 2015-05



현대 수수께끼

현대에도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사실로 말할 수 있다. 문명의 시대에 옛날의 놀이 방식이었던 수수께끼가 출현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수께끼에 현대라는 문명과 소통에 적절히 부합되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 수수께끼는 현대 문명의 핵심인 인터넷에서 트위터의 단문이 수수께끼의 짧은 형식과 공통점이 있고, 소통이 결핍된 현대에 화자와 청자라는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현대 수수께끼를 정의하고 기능, 생성, 종류, 언어 자료, 고전 자료, 언어 놀이의 관점으로 언중이 수수께끼를 통해 소통하고 의식을 반영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박은희, 사륙판, 104쪽, 9800원, 2015-05

다른 과목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광고

공간 커뮤니케이션

P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경제, 경영, 정책

미디어론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방송, 영상

연구방법론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저널리즘

소통, 스피치, 글쓰기, 토론

미디어교육

한국어

대중문화

가이드를 다 보았는데도 마음에 드는 교재가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리딩패킷 교재'를 이용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나만의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딩패킷 만들기 튜토리얼 영상 보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교재 문의

02-3700-1207, text@commbooks.com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11 (성북동1가 35-38)

T.02-7474-001 F.02-736-5047 commbooks.com